

기후변화로 인한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의 의미 변화: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을 중심으로

연분홍¹ · 오세이²

¹송실대학교 국민생활체육연구소 연구교수 · ²송실대학교 스포츠학부 교수

The Meaning Change of Outdoor Sports Space for the Elderly due to Climate Change: Based on Lefebvre's Theory of Space Production

Yeon, Boon-Hong¹ · Oh, Sei-Yi²

¹⁻²Soongsi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the socio-cultural meanings of outdoor sports spaces used by older adults are reconfigured under climate change—particularly heatwaves, cold spells, and fine particulate matter—drawing on Lefebvre's (1991) tripartite framework of the production of space and his contrast between abstract and differential space. A case study was conducted with ten older adults (five male, five female) aged 65 and over who had participated for at least three years in three outdoor sports clubs (gate ball, park golf, and tennis). Data were collected over 10 months through non-participant observation an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two researchers coding the data independently and reaching agreement through consensus discussion (Cohen's $\kappa = .78$). Findings indicate that the socio-cultural meanings shifted toward (a) spaces in which everyday life is upheld against climate adversity, (b) spaces fragmented along seasonal-temporal lines, and (c) experiential spaces in which climate inequality becomes visible through facility disparities. In terms of Lefebvre's framework, spatial practice involved hierarchically distinguishable acts of adaptation, negotiation, and resistance; the representation of space was infiltrated by administrative and expert climate discourses (abstract space) and reshaped by infrastructural gaps; and the space of representation generated communal differential spaces of solidarity, mutual care, and creative play.

Key words : climate change, senior sports, outdoor sports, sports space,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이 논문은 202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6007225).

주요어 : 기후변화, 노인스포츠, 야외스포츠, 스포츠공간,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Sei-Yi

E-mail: ssu0379@ssu.ac.kr

Received: April, 29, 2026 Revised: May, 29, 2026 Accepted: June, 8, 20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폭염·한파·집중호우·미세먼지 등 극단 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IPCC, 2022; 환경부, 2023),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자연환경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건강,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 사회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인 계층의 기후 취약성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더욱 주목된다. 첫째, 노인은 체온조절 능력의 저하로 폭염·한파에 대한 생리적 대응력이 낮다. 둘째,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아 대기오염 및 극단 기상의 복합 피해를 받기 쉽다. 셋째, 사회관계망의 위축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김기연, 신연수, 김윤정, 2025). 또한 폭염, 대기오염,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변화 요인은 노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하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현대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고령화는 상호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형성한다. 고령층은 기후변화의 주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환경행동의 중요한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양식과 환경 인식은 기후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윤이숙, 2025).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가스포츠는 신체적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김기운, 서희진, 2016; 연분홍,

김종순, 2025; 이은주, 2014). 특히 노인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형성, 우울·고립의 완충, 자아존중감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더불어 여가스포츠 활동은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사회적 관계와 의미가 형성되는 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노인의 일상생활과 공간 이용 방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의 전제가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이트볼장·파크골프장·테니스장 등 노인 친화형 야외 스포츠 시설 조성을 확대해 왔다. 특히 노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5년 기준 60% 내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통계청, 2024). 이처럼 노인 야외 스포츠 시설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후변화는 해당 공간의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분석이 요청된다.

기후변화가 노인의 야외 스포츠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156개국 패널 자료 분석에 따르면 평균기온 상승은 성인의 신체 비활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그 영향은 더운 지역과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García-Witulski et al., 2026). Seritan(2023)은 폭염과 대기오염 등 기후위험이 노년층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상혁과 이동근(2024)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50년 한국 여름철 65세 이상 폭염 사망 위험이 현재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폭염은 노인의 야외 활동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노인 거주지와 기후 적응 시설의 공간적 불일치 속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다(강수와 외, 2024).

이로 인해 노인들은 야외 스포츠 공간을 단순한 ‘운동 장소’가 아니라 일기·기온·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기후 조건과 협상해야 하는 가변적 환경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야외 스포츠 공간을 물리적 시설로만 이해하던 기존 시각을 벗어나, 공간을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의미의 장으로 재해석된다. 즉, 기후변화 맥락에서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Lefebvre(1991)의 공간생산이론은 공간을 단순한 행위의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 전문가의 담론, 그리고 개인의 체험이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는 공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 구성원의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둘째, 도시계획가, 행정가, 미디어 등이 개념과 기호로 구성하는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 셋째, 사용자가 직접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재현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이다(국토연구원, 2001; 장세룡, 2006). 더 나아가 그는 자본과 행정의 논리에 의해 표준화된 ‘추상공간(abstract space)’과, 사용자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새롭게 의미가 형성되는 ‘차이공간(differential space)’의 긴장 관계를 중요한 분석 틀로 제시하였다(홍준기, 2011).

본 연구는 이 삼중 구조를 바탕으로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의 생산 과정을 층위별로 분석하고, 각 차원에서 추상공간의 표준화 압력과 차이공간의 일상적 전유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Lefebvre의 이론이 본 연구에 유효한 이유는 기후변화가 행정·미디어 담론(공간의 재현)과 노인의 체험(재현의 공간) 사이의 간극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간극이 야외 스포츠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노인 스포츠 공간이 단순한 운동 장소가 아니라 ‘실버파워의 표출 공간’, ‘사회적 건강의 유지 공간’ 등 다층적 의미를 지닌 사회문화적 장임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원희, 2017; 김기운, 서희진, 2016; 정희재, 이민규, 조은영, 2017). 김기운과 서희진(2016)은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을 적용해 노인 여가스포츠 공간의 삼변증법적 재생산 과정을 분석한 바 있으며, 김소미와 김정은(2023)은 가상 체육공간에 동일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구강본(2013)과 박보현(2010)은 스포츠 공간의 사회적 맥락성과 자본 침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상당수는 기후변화라는 환경적·구조적 변수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기후 적응을 다룬 보건·정책 연구는 주로 사망률·질병 부담이라는 임상 지표에 집중되어(김상혁, 이동근, 2024) 일상의 미시적 공간 경험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임정민(2025)은 극단 기상이 관광·레저 수요를 위축시키며, 야외활동의 기후 민감도가 실내활동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강수와 외(2024)은 GIS 분석을 통해 폭염 취약 노인 거주지와 무더위 쉼터의 공간적 불일치를 드러냈다. 이들 연구는 거시적 수요·공간 분석에서 의의를 갖지만, 노인이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는 공간 의미의 변화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공통된 한계가 있다.

결국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 한계를 공통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스포츠 공간 연구들은 노인 여가스포츠 공간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공간 생산 과정에 주목해 왔으나, 기후변화를 주요한 구조적 변수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반면 기후변화 및 보건 분야 연구들은 폭염, 미세먼지, 건강 취약성 등 환경 위협의 영향을 주로 다루어 왔지만, 노인들이 실제 일상 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게이트볼·파크골프·테니스 세 종목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야외 스포츠 공간 경험을 사례로 삼아, 기후변화가 해당 공간의 의미 생산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과 추상·차이공간 개념을 결합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efebvre의 삼변증법을 다음과 같이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첫째, 공간적 실천 차원에서는 노인의 활동 시간·강도·복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공간의 재현 차원에서는 행정·미디어가 생산하는 안전 담론과 시설 인프라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였다. 셋째, 재현의 공간 차원에서는 동호회 단위에서 형성되는 연대·돌봄·창의적 공간 사용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대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의미를 드러내고, 노인 친화적 기후 적응형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시대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과 추상·차이공간 개념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의 생산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후변화라는 외적 조건이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경계 지어진 체계 안에서 다층적 자료를 통해 현상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접근으로(Creswell, 2010; Bogdan & Biklen, 1992), 기후라는 거시조건이 구체적 공간과 행위에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살피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분

석틀로는 Lefebvre(1991)의 삼변증법과 추상공간·차이공간 개념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귀납적으로 도출되는 새로운 범주들을 열린 시각에서 수용하는 혼합적 접근을 취하였다.

2. 연구참여자 및 연구환경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해당 동호회에 3년 이상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둘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심층면담 참여에 동의한 자,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야외 스포츠 활동에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자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참여 경력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간 경험의 변화가 단기간에 형성되기보다 계절 변화와 반복적 경험 속에서 누적적으로 형성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이상 동일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참여자들은 폭염·한파·미세먼지 증가 이전과 이후의 활동 경험을 비교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간 이용 방식의 변화와 적응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10명(남 5명, 여 5명)이 선정되었으며,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또한, 연구환경으로는 A광역시 B구 소재 C 생활체육회 산하 게이트볼·파크골프·테니스 동호회 세 곳을 선정하였다.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5)에 따르면 세 종목은 노인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가장 많은 야외 종목이다. 특히, 게이트볼과 파크골프는 고령층 참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테니스 역시 중·고령층 참여가 활발한 대표 야외 생활체육 종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두 공원 내 야외 시설을 주된 활동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후 조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종목	경력	주요 만성질환	기후 인지도
1	참여자 A	남	72	게이트볼	8년	고혈압	상
2	참여자 B	남	68	파크골프	5년	당뇨	중
3	참여자 C	남	75	게이트볼	12년	관절염	상
4	참여자 D	남	70	테니스	15년	없음	상
5	참여자 E	남	66	파크골프	4년	고혈압	중
6	참여자 F	여	73	게이트볼	6년	골다공증	중
7	참여자 G	여	69	테니스	10년	고혈압	상
8	참여자 H	여	71	파크골프	3년	당뇨, 고혈압	중
9	참여자 I	여	77	게이트볼	9년	관절염	상
10	참여자 J	여	65	테니스	7년	없음	상

주: 모든 성명은 가명이며, 기후 인지도는 '기후변화가 본인의 야외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자기 보고 (상·중·하)임.

합하였다.

3. 자료수집

1) 참여관찰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의 유형 중 비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비참여관찰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Spradley, 1980). 연구자가 게이트볼·파크골프·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노인 생활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후 조건과 공간 이용 양식 간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비참여관찰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에 각 동호회 임원진 및 회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제 활동 현장에 함께 머무르며 관찰을 수행하였다. 관찰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쳤으며, 봄(3~4월), 여름(7~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의 계절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이른 한파 진입 시기에 집중적으

로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기후 조건의 변동이 공간 이용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정기 동호회 활동 외에도 월례대회, 분회별 모임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활동에도 참석하여 최대한 많은 장면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관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필요한 수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되, 활동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면담 외에도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동호회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관찰된 내용은 현장 노트에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정보, 경험, 의견, 신념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목적 지향적 의사소통 과정으로 이해된다 (Bogdan & Biklen, 1992; Lincoln & Guba, 1985). 이는 참여자의 생활세계와 관점, 의식, 감정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핵심 방법 중 하나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면서도 명확한 연구 목적을 지닌다는 특징을 갖는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참여 관찰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

뢰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식의 심층 면담(Rubin & Rubin, 2011)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1인당 약 6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주로 동호회 활동 전후의 시간이나 별도로 협의된 장소에서 개인 대 개인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야외 스포츠 활동의 변화, 공간 이용 방식의 조정,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과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 및 전사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충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면담 범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기본적인 면담범위 및 내용

면담 영역	주요 질문 내용
참여 배경 및 일상	해당 종목 참여 동기, 동호회 가입 경위, 운동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폭염·한파·미세먼지 경험 빈도,
기후변화 인식	기후변화가 본인 활동에 미친 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
공간적 실천의 변화	활동 시간대·강도·복장·장비의 변화, 활동 중단·재개 의사결정 과정
담론·제도와의 상호작용	행정 안전수칙·미디어 보도·의뢰 권고가 본인 인식과 행동에 미친 영향
공동체와 연대 경험	동호회 내 정보 공유, 안전 규칙 마련, 상호 돌봄 사례, 연대감의 변화
시설·인프라 평가	현 시설의 기후 적응성, 시설 격차에 대한 인식, 정책 요구

4. 자료분석 및 진실성 확보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 면담 녹취 자료는 축어록으로 전사한 후, 연구자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1인이 동일 자료를 각각 독립적으로 1차 암호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Lefebvre의 삼변증법(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과 추상공간·차이공간 개념을

선험적 코딩 범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자료에서 도출되는 의미 단위를 귀납적으로 함께 반영하였다. 코딩 단위는 의미를 지닌 문장 또는 문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자료 중 4명(40%)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독립 코딩 결과를 비교한 결과 Cohen's $\kappa = .78$ 로 상당한 수준의 일치도를 확인하였으며(Landis & Koch, 1977), 불일치 항목은 협의를 통해 통합 코드로 정리한 후 최종 분석에 적용하였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삼각검증(triangulation)으로 참여관찰 자료, 심층면담 자료, 현장 메모를 상호 비교하고 관찰과 면담 결과를 반복 대조하였다. 둘째, 구성원 검토(member checks)를 통해 참여자 4명에게 분석 해석과 인용문 맥락을 확인받고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동료 협의(peer debriefing)를 통해 스포츠사회학 전공 연구자 1인과 코드 분류 및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적응·협상·저항'의 위계 구분과 '하이브리드 적응 체계'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논의하였다. 넷째, 반성적 기록(progressive subjectivity)을 통해 연구자의 선이해와 가치 판단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노인의 활동 지속을 '저항'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복적 자료 검토를 통해 적응과 협상이 현장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분석 범주를 수정하였다.

5.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인간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참여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하였

으며,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자발성, 익명성, 비밀보장의 원칙을 바탕으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료 수집 방법, 면담 녹음 여부, 자료 활용 범위 및 보관 방식 등을 구두와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연구 과정 중 언제든지 면담 중단이나 연구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참여자의 이름과 지역명은 가명 처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면담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는 암호화된 저장장치에 보관하였고, 연구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재적 실험이나 의료적 처치를 포함하지 않는 최소 위험(minimal risk)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참여자의 심리적 부담이나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시간과 강도를 참여자의 상태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일상 활동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현장 관찰 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연구자가 수집한 모든 자료는 연구윤리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였다.

III. 결과

1.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의 사회문화적 의미 변화

1) 기후위기 앞에 선 ‘버티는 일상’의 공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폭염·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도 야외 스포츠 공간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에게 야외 스

포츠 공간은 단순한 운동 장소가 아니라, 기후라는 물리적 장벽 앞에서도 자신의 능동성과 일상의 주도성을 유지하려는 ‘버티는 일상’의 무대로 의미화되고 있었다.

“더워도 안 나오면 몸이 더 굳어버려. 좀 힘들어도 나와서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게 낫지. 집에서 에어컨만 켜고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로워. 여기 나오면 뭐라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참여자 A, 남, 72세, 게이트볼)

“미세먼지 나쁘다고 요즘 TV에서도 난리지. 그래도 마스크 끼고 나와. 집에 있으면 나 혼자인데 여기 나오면 다들 있잖아. 그 낙으로 나오는 거지.” (참여자 F, 여, 73세, 게이트볼)

참여자 A의 ‘더워도 안 나오면 몸이 더 굳어버려’라는 진술과 참여자 F의 ‘마스크 끼고 나와’라는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 노인들은 기후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버티는 일상’은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면서도 일상을 계속 이어가려는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공간의 시간적 재편과 계절적 분절

기후변화 이전 노인의 야외 스포츠 공간은 비교적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과 속에서 이용되었으나, 폭염 일수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늘면서 참여자들은 연간 활동 시기를 세분화하고 시간대별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었다.

“여름엔 새벽 5시 반에 나와. 7시만 넘어가도 너무 더워서 못 쳐. 옛날엔 이렇게까지 이른 새벽에 나오진 않았는데 요즘엔 이게 당연해졌어.” (참여자 C, 남, 75세, 게이트볼)

“파크골프는 원래 봄가을이 최고지. 그런데 요새 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 진짜 운동하기 좋은 날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 (참여자 B, 남, 68세, 파크골프)

“테니스는 원래 한여름에도 했는데, 요즘 폭염특보 뜨면 아예 코트를 잠가버려. 결국 한여름 두 달은 거의 쉬는 셈이지.” (참여자 G, 여, 69세, 테니스)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활동 가능 시간대가 ‘새벽’이라는 매우 제한된 구간으로 응축되고 있다. 참여자 C가 지적한 ‘5시 반’과 ‘7시’ 사이라는 90분 남짓의 ‘기후 적응 윈도우’는 폭염이 일상화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간 자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활동 가능 계절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참여자 B가 ‘봄이 짧아진다’고 표현한 현상이나 참여자 G가 보고한 ‘한여름 두 달 휴장’은 기후변화가 야외 스포츠 공간을 ‘연중 활용 공간’에서 ‘조건부 활용 공간’으로 변형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간 변화는 폭염특보 시 코트를 폐쇄하는 행정 방침과, 노인들이 스스로 운동 시간을 조절한 결과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간 이용은 날씨 정보, 행정 결정,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후 불평등의 체험 공간

참여자들은 시설 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기후 변화 영향이 균질하지 않다는 점을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었다.

“저 건너편 테니스 코트는 차양막도 있고 쿨링 미스트도 있어. 우리 게이트볼장은 그늘도 변변치 않고. 정작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공간인데 시설은 왜 이게 더 형편없냐고요.” (참여자 I, 여, 77세, 게이트볼)

“요즘 좋은 파크골프장은 전동 카트도 있고 냉방 선풍기도 있더라고.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어.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참여자 H, 여, 71세, 파크골프)

참여자 I의 ‘바로 건너편’이라는 공간 인식은 기후 불평등이 추상적 통계가 아니라 시각적·일상적 차원에서 체험되는 문제임을 보여 준다. 같은 공원,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종목과 시설의 위계에 따라 기후 적응 자원이 차등 배분되는 현실은, 기후 불평등이 외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도시 내부의 자원 분배 정치에서 발생함을 드러낸다. 참여자 H가 ‘어디 말할 데도 없고’라고 표현한 부분은 기후 적응 인프라 격차에 대한 의견이 공식적 정책 채널로 흡수되지 못하는 거버넌스의 공백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시설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2. 공간적 실천: 적응·협상·저항의 위계

본 연구에서 노인들이 보여 준 행위는 단순한 ‘저항’의 양상으로 환원되기보다, 환경 변화에 자기 행동을 맞추는 적응(adaptation), 외부 담론·구조와 자기 욕구 사이에서 타협하는 협상(negotiation), 지배적 담론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저항(resistance)의 위계적 층위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Pelling(2011)의 적응-전환 스펙트럼과 Scott(1985)의 일상적 저항 논의를 참고하였으며, 노인의 일상을 낭만적 저항 서사로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결을 분리해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1) 적응: 활동 시간대·강도의 자기 조정

적응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기 행동을 재배치하는 행위이다. 참여자들은 폭염·미세먼지라는 환경 조건의 가변성을 일상의

변수로 수용하고, 활동 시간·강도·복장·정보 도구를 능동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었다.

“여름엔 일단 물부터 많이 챙기고, 모자 꼭 쓰고, 그늘에서 쉬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 예전엔 쉬지 않고 계속 쳤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폭염에 쓰러진 사람도 몇 번 봤거든.” (참여자 D, 남, 70세, 테니스)

“미세먼지 앱은 항상 켜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나쁘면 오늘 나갈까 말까 고민하지. 예전엔 그냥 나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 (참여자 E, 남, 66세, 파크골프)

이러한 적응 실천에서 주목할 점은 신체 능력이나 운동 기능이 아니라 ‘기상 정보 해독 능력’과 ‘앱 활용 능력’이 새로운 일상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 시대의 야외 스포츠 공간 이용은 노인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와 환경 모니터링 능력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요구한다.

2) 협상: 안전 담론과 활동 욕구 사이의 타협

협상은 행정·미디어가 부과하는 ‘활동 자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지도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욕구·일상과 절충하는 행위이다. 노인들은 안전수칙 문자나 폭염 보도 앞에서 ‘위축감’과 ‘헛갈림’을 느끼면서도 마스크 착용·짧은 시간·그늘 휴식 같은 부분 수용으로 활동을 지속하였다.

“구청에서 폭염 안전수칙 문자가 자주 와. 노인들은 야외활동 자제하라고. 그거 보면 좀 움츠러들지. 그렇다고 안 나올 수는 없잖아.” (참여자 A, 남, 72세, 게이트볼)

“TV에서 노인을 폭염에 특히 위험하다고 맨날 나오잖아. 듣고 있으면 내가 여기 나오

는 게 맞는 건지 헛갈릴 때도 있어. 근데 나오면 좋으니까...” (참여자 F, 여, 73세, 게이트볼)

참여자 A와 F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움츠러들지만 안 나올 수 없다’ 또는 ‘헛갈리지만 나오면 좋다’는 표현은, 권력적 메시지에 ‘예/아니오’로 단순 응답하지 않고 신체와 일상을 매개로 그 메시지를 미세 조정하는 일상의 정치(politics of everyday life)에 해당한다. 이러한 협상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위험 정보의 신뢰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활동 욕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 적응 장치(마스크·짧은 활동 시간·그늘 휴식)를 매개로 ‘활동 지속’과 ‘안전 수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양가적 합리성의 표현이다.

3) 저항: 지배적 담론과의 의식적 거리 두기

저항은 지배적 안전 담론과 ‘위험한 노인’이라는 표상에 대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행위이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저항은 협상의 정점에 위치하며, 자기 가치를 명시화하는 결로 출현하였다.

“나오면 좋으니까.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람 만나는 게 사는 건데 그걸 막으면 어찌라는 거야. 위험한 거 알지. 알면서도 나오는 거지.” (참여자 C, 남, 75세, 게이트볼)

참여자 C의 진술에서 ‘사람 만나는 게 사는 건데’라는 표현은 행정·의료가 정의하는 ‘올바른 노인의 행동’과 자신의 가치체계가 다름을 명시적으로 표명한다. 이러한 저항은 단순한 자기보호를 넘어 ‘노년기의 능동성·시민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Bevan, 2001; Scott, 1985). 다만 본 연구는 이 ‘저항’을 일방적 영웅화로 미화하지 않으며, 신체 위험을 동

반한 양가적 실천임을 분명히 한다. 저항은 적응이나 협상과 완전히 다른 행동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적응, 협상, 저항을 오갈 수 있으며, 이는 행동의 종류라기보다 행동의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4) 집단적 대응 실천

주목할 점은 위 적응·협상·저항이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동호회 단위의 집단적 실천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노인 스포츠 공간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의 거점이라는 기존 논의(이원희, 2017)가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끼리 규칙을 정했어. 온도 35도 넘으면 그날은 쉬고 다음날 두 배로 뛰자고. 혼자 결정하면 억울한데, 다 같이 정하니깐 잘 지켜지더라고.” (참여자 C, 남, 75세, 게이트볼)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단독방에 ‘오늘 나쁘다, 조심하자’ 하고 올려. 그러면 알아서 들 판단하지. 우리가 서로 챙겨 주는 거야.” (참여자 J, 여, 65세, 테니스)

이러한 집단적 실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개별 적응의 한계(정보 비대칭, 의사결정의 자기 합리화 부담)를 동호회 차원의 합의된 규칙으로 보완한다. 참여자 C가 ‘혼자 결정하면 억울한데 다 같이 정하니깐 잘 지켜진다’고 말한 부분은 집단 규범이 개인의 의지의 결핍을 보완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작동함을 보여 준다. 둘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매개로 한 정보 공유는 공식적 안전 정보가 채우지 못하는 회색지대를 메우는 비공식적 거버넌스로 기능한다. 이는 공식 정책과 비공식 자율 규범이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노인의 야외 스포츠 안전을 지탱하는 ‘하이브리드 적응 체

계(hybrid adaptation system)’의 출현을 시사한다.

3. 공간의 재현: 기후 안전 담론의 침투

지자체의 폭염 안전수칙 문자, 보건당국의 야외활동 자제 권고, 미디어의 기후위험 보도가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에 반복적으로 침투하면서, 이 공간은 여가의 장소를 넘어 ‘관리되어야 할 위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표상은 안전을 매개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신체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안전 관리 대상’ 안으로 흡수하는 추상공간(abstract space)의 작동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폭염 쉼터, 냉수 공급, 쿨링 미스트, 그늘막과 같은 기후 적응 시설의 유무는 공간의 의미를 실제로 바꾸고 있었다. 이러한 시설이 있는 곳은 ‘보호된 공간’으로, 부족한 곳은 ‘포기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난 여름에 파크골프장 쉼터에 에어컨을 달아 줬어.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 거기서 쉬다가 다시 나가면 할 만하지.” (참여자 B, 남, 68세, 파크골프)

“우리 게이트볼장은 그늘막 하나 없어. 구청에 몇 번 건의했는데 예산이 없다고만 하더라고. 여름엔 진짜 못 버티겠어.” (참여자 I, 여, 77세, 게이트볼)

참여자 B와 I의 진술 대비는 같은 광역시·구 안에서도 시설 인프라의 격차가 ‘활동 가능성’ 자체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참여자 B의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라는 표현은 기후 적응 시설 한 가지(에어컨 쉼터)가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질적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을, 참여자 I의 ‘예산이 없다’는 행정 응답은 기후 취약 노인의 요구가 공식 의사결정 회로 안에서 어떻게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를 드러낸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일부 노인

스포츠 공간은 ‘보호된 공간’과 ‘포기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4. 재현의 공간: 차이공간으로서의 공동체 공간 생산

재현의 공간은 사용자들이 공간을 직접 살아내고 실천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층위이며, 그 안에서 추상공간의 균질화 압력에 맞서는 ‘차이공간(differential space)’적 실천이 출현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활동 제약이 역설적으로 동호회 구성원 간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들이 야외 스포츠 공간을 새로운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산하는 모습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1) 연대와 돌봄의 공간

“폭염 때 쓰러진 사람 있었잖아. 그다음부터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스팩 챙겨 오기로 했어. 여기 와서 그런 정을 새로 알게 됐어.” (참여자 F, 여, 73세, 게이트볼)

참여자 F의 진술에서 ‘쓰러진 사람’이라는 구체적 사건은 동호회 구성원 사이에 ‘서로 챙겨야 한다’는 새로운 규범을 촉발하였다. 기후 위험은 추상적 통계가 아니라 동료의 실제 사고를 통해 일상에 구체화되며, 이는 자발적 돌봄 실천(아이스팩 순번제)으로 응축되어 야외 스포츠 공간을 ‘운동 공간’에서 ‘상호 돌봄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2) ‘새로운 놀이터’의 창조

“못 쳐도 나와. 그늘에 앉아서 구경하고,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가끔 간식 먹고... 꼭 운동 안 해도 여기 오는 게 좋은 거야.” (참여자 A, 남, 72세, 게이트볼)

“날이 나빠 테니스 못 치는 날엔 우리끼리 코트 옆 벤치에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지. 오히려 그런 날 더 친해지는 것 같아.” (참여자 J, 여, 65세, 테니스)

참여자 A와 J의 진술은 노인들이 기후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에도 활동을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공간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실천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행정·자본·전문가가 부과하는 ‘공간의 정해진 사용’(추상공간)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스스로 새로운 의미와 실천을 창출하는 ‘살아 있는 공간(lived space)’의 생산에 해당한다. 운동을 못하는 날이 오히려 서로 더 친해지는 날이 된다는 점은, 기후 제약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논의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과 추상공간·차이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이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니라, 기후 조건과 제도적 담론, 일상적 실천이 교차하며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사회적 공간임을 보여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문화적 의미 변화의 학술적 함의

연구결과 1에서 도출된 세 가지 의미 범주, 즉 ‘버티는 일상’의 공간, 시간적 분절 공간, 기후 불평등의 체험 공간은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상호 결합된 구조로 작동한다. 노인이

기후 위험 속에서도 일상을 ‘버티는’ 행위는 시간적 분절을 적응 자원으로 활용할 때 가능해지며, 그 적응의 성패는 다시 시설 인프라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 즉 ‘버티는 일상’의 지속 여부 자체가 기후 불평등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노인 스포츠 공간을 분석할 때 의미의 층위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서로를 조건 짓는 구조적 의존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버티는 일상’의 공간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실버파워의 표출 공간’(이원희, 2017)과 맞닿아 있으나, 기후라는 외적 조건이 노년의 능동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추가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Bevan(2001)이 지적하듯 노인은 신체적 제약 속에서도 스포츠 공간을 통해 정체성과 역량을 확인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이 기후변화 환경에서 더욱 의례화되고 집단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 A의 진술에서 ‘몸이 굳는다’는 신체 감각과 ‘외롭다’는 정서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호명되는 양상은 노년기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자기관리가 야외 스포츠 공간이라는 단일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노인의 ‘버티기’가 신체활동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WHO, 2022; Garcia-Witulski et al., 2026)을 완화하는 자기보호 전략이자, 사회적 고립을 완충하는 정서적 자원으로 동시에 기능함을 보여준다.

시간적 재편 양상은 임정민(2025)이 제시한 야외 레저 활동의 기후 민감성과 Tipaldo, Balk, Hunter(2024)가 제시한 기후-노화 취약성 분석틀, 그리고 Garcia-Witulski 외(2026)가 보여 준 기온-신체비활동 관계가 노인의 일상에서 ‘시간 구조의 변형’으로 구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만 노인 게이트볼 동호회가 폭염 시 활동 시간을 새벽으로 조정하고 35℃ 이상 자율 중단 규범을 운영한다는 보고(Taipei Times, 2023)는 이러한

시간 재편이 유사한 다른 동아시아 사례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Lefebvre(1992)의 리듬분석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는 노동, 자연, 신체의 리듬을 재조정하며 야외 스포츠 공간을 시간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후 적응 윈도우’, 즉 새벽 약 90분으로 압축된 활동 가능 시간은 이러한 리듬 변화의 구체적 단면이다. 이는 향후 노인 친화적 시설 운영 시간 설계나 새벽 시간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기후 불평등의 체험 공간이라는 결과는 Silk(2004)가 지적한 스포츠 공간 개발의 이중성, 즉 불평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은폐하는 구조가 기후 적응 인프라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수와 외(2024)의 GIS 분석에서 확인된 폭염 취약 지역과 쉼터 입지의 불일치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 경험을 통해 ‘체험적 차원’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경험을 연결하는 방법론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바로 건너편’에 존재하는 시설 격차에 대한 인식은 기후 불평등이 통계적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시각적 경험으로 즉각 체감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는 노인 스포츠 공간에서 기후 적응 인프라의 분배 문제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공간적 실천의 위계 분석이 갖는 이론적 기여

연구결과 2에서 제시한 적응·협상·저항의 위계적 구분은 노년기의 기후 적응을 단일한 영웅적 저항 서사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가진다. Pelling(2011)의 적응-전환 스펙트럼이 거시적 사회 변화의 차원에서 회복·전환·변혁의 위계

를 제시한 반면, Scott(1985)의 일상적 저항 논의는 미시적 권력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은밀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 두 이론적 관점을 노인의 야외 스포츠 공간이라는 구체적 맥락에 접목함으로써, 거시적 적응 담론과 미시적 저항 실천을 연결하는 중간 수준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 발견은 적응·협상·저항이 서로 분리된 범주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위계적으로 배열된다는 점이다. 협상은 기후 위험에 대한 ‘헛갈림’과 같은 양가적 정서를 포함하면서도 활동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며, 저항은 이러한 협상의 과정 끝에서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명시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개인이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세 행위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점은, 이들 범주가 고정된 행위 유형이 아니라 행위의 강도와 결의 차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기후변화의 ‘수동적 피해자’ 혹은 ‘저항적 주체’ 중 하나로 단순화해 온 기존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는 분석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동호회 단위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 대응 실천을 ‘하이브리드 적응 체계(hybrid adaptation system)’로 개념화한다. 이는 폭염 안전수칙이나 미디어 보도와 같은 공식 정책 담론과, 35℃ 자율 중단 규칙, 단체 채팅방 정보 공유, 아이스팩 순번제와 같은 비공식적 규범이 결합하여 노인의 야외 스포츠 활동을 유지시키는 복합적 적응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참여자 C의 “혼자 결정하면 억울한데 다 같이 정하니까 잘 지켜진다”는 진술은 이러한 체계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집단 규범이 개인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행동 지속성을 높이는 사회심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호회 단위에서 형성되는 자율적 적응 실천이 향후 기후 적응 정책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한다.

3. 공간의 재현과 추상공간의 역설

연구결과 3은 공간의 재현 층위에서 ‘추상공간(abstract space)’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행정과 미디어가 생산하는 ‘활동 자제’ 담론은 안전을 매개로 노인의 신체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안전 관리 대상’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기후 적응 시설 자원의 차등 배분은 적응 인프라를 ‘보호된 공간’과 ‘배제된 공간’으로 양극화하며 노인 스포츠 공간의 위계를 재생산한다. 이 두 메커니즘은 서로 분리된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표상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동일한 추상공간 논리가 담론과 인프라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 내는 ‘담론적 역설’이다. 신체활동 부족이 폭염 자체의 위험에 준하는 건강 위험 요인으로 보고된다는 점(WHO, 2022; García-Witulski et al., 2026)을 고려하면, ‘활동 자제’ 중심의 안전 담론은 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건강 위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폭염으로 인한 급성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적 메시지가 장기적으로는 신체 활동 감소에 따른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스포츠 정책은 단순한 활동 제한 중심 접근을 넘어 ‘안전한 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활동 자제 권고를 일률적 금지나 제한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기후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한 안전 활동 가이드(예: 새벽 시간대 활용, 휴식-운동 비율 조정, 고온 시 보호장비 기준 등)와 결합한 ‘조건부 활동 권고’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시설 격차의 문제는 자원 배분이 실제 기후위험 노출 정도라기보다 시설 위계, 민원 제기 가능성, 정책적 가시성 등 추상공간의 행정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강수와 외, 2024). 다만 본 연구는 종목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구성에 대한 직접 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설 격차와 사회경제적 위계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후속 양적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2023)의 제3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기후 취약계층의 야외 활동 가능 환경 조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격차가 지속된다는 사실은, 기후 적응 정책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과 예산 배분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4. 재현의 공간과 기후 시민성의 출현

연구결과 4에서 나타난 연대, 돌봄, 창의적 공간 활용은 추상공간의 균질화 압력에 대응하여 이용자들이 의미를 새롭게 생성해 내는 ‘차이공간(differential space)’의 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 노인 여가활동이 사회적 접촉의 축소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기존 연구(배재운, 2024)와 비교할 때, 본 연구는 기후 위협이 반드시 관계 단절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두 유형의 외부 위협이 노인의 여가 공간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게 전개된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공간 점유의 지속성(persistence of spatial occupancy)’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공간 점유의 지속성’은 외부 위협으로 인해 활동 방식은 변화하더라도 공간에 대한 신체적 접근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은 공간 출입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지속성을 구조적으로 단절시키는 반면, 폭염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 위험은 활동의 제약을 강화할 뿐 공간 점유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는다. 공간이 물리적으로 열려 있는 한, 이용자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차이공간의 형성 조건은 ‘공간 점유의 지속성’ 유지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제약을 단순한 활동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계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을 못 하는 날이 오히려 더 친해지는 날”이라는 참여자들의 진술은 기후 제약이 손실 요인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 ‘부정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년층이 기후변화 환경 속에서도 수동적으로 위축되기보다는 공간 사용 방식을 재구성하며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공간의 형성은 자생적이고 비정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추상공간 논리에 의해 쉽게 가시화되지 않거나 잠식될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H의 “어디 말할 데도 없고”라는 언급은, 제도적 지원과 거버넌스의 공백 속에서 이러한 실천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상은 노년층이 단순한 기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후 시민(climate citizens)’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Lefebvre 이론을 한국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에 접목시키며 새 분석 개념(기후 적응 원도우·하이브리드 적응 체계·공간 점유의 지속성)을 정식화하였다. 둘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거시 통계와 GIS 분석이 보여주지 못하는 미시적 의미 변화를 10개월에 걸친 다계절 비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으로 포착하였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이 마주한 초고령화와 기후위기의 동시 진행이라는 특수 맥락에서 두 의제를 통합적으로 사유할 분석 자원을 제공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사례에서 확인된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은 단순한 활동 장소를 넘어 ‘버티는 일상’을 구성하는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동시에 이 공간은 기후변화에 따라 시간적으로 분절되고 재편되는 가변적 특성을 지니며, 시설 격차를 매개로 기후 불평등이 일상적으로 가시화되는 체험적 공간으로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 공간적 실천 층위에서는 적응·협상·저항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행위 변형과 함께 ‘하이브리드 적응 체계’의 형성이 나타났다. 공간의 재현 층위에서는 ‘추상공간’이 안전 담론과 시설 격차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담론적 역설’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재현의 공간 층위에서는 ‘공간 점유의 지속성’을 매개로 차이공간이 생성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노인 야외 스포츠 공간에 대한 기후 적응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며, 시설 격차가 노인 간 기후 불평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기반한 공공투자가 요구된다. 둘째, 기후 변화 시대의 노인 스포츠 정책은 기존의 ‘활동자제 권고’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안전한 활동 지속(safe activity continuation)’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벽

시간대(예: 5~7시) 시설의 우선 개방, 안전관리 인력의 탄력적 배치, 폭염특보 시 단순 폐쇄 대신 그늘쉼터·쿨링 미스트·냉방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단축 운영 체계, 그리고 기상 정보 앱과 연동된 동호회 단독방 기반의 자동 안전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체활동 부족의 건강 위험과 폭염 노출 위험을 함께 반영한 ‘조건부 활동 가이드라인’의 개발도 필요하다. 셋째, 노인 동호회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기후 정보 공유 및 집단 안전 규범과 같은 비공식적 적응 실천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인식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자생적 차이공간이 행정 중심의 추상공간 논리에 의해 약화되거나 흡수되지 않도록 동호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상 정보 제공, 응급 대응 매뉴얼, 안전 키트 등을 종목별 특성에 맞게 표준화하여 지원하는 보완적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디자인 정의(design justice) 관점에서 노인 당사자가 시설 설계·운영의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주민 참여형 시설 설계 워크숍, 종목별 자문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특정 지역(A광역시 B구)의 세 종목 동호회 사례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 그리고 시설 인프라 수준이 상이한 다지역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규 참여자나 활동 중단자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다양한 참여 이력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적 사례연구로 수행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공간 의미의 변화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상공간의 행정 논리(시설 위계, 민원 강도,

정치적 가시성)에 따른 자원 배분' 가설은 면담 자료에 기반한 해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행정 자료, 예산 데이터, 종목별 이용자 통계 등을 활용한 양적 검증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사례를 통해 노인의 야외 스포츠 공간이 기후변화 상황 속에서 다층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공간을 기후 적응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노인 스포츠 정책과 기후 적응형 공간 계획을 논의하는 데 참고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강수와, 김진주, 전수민, 한진희, 김유미(2024). 폭염 취약성과 노인 인구를 고려한 무더위 쉼터 입지 연구: 서울시 행정동에 대한 공간 분석.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5(6), 1001-1022.
- 구강본(2013). 스포츠공간의 사회적 맥락성과 상징성. *한국체육철학회지*, 21(2), 59-75.
- 국토연구원(2001).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서울: 한울.
- 김기연, 신연수, 김윤정(2025). 기후변화가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도전. *한국노년학연구*, 34(2), 75-95.
- 김기운, 서희진(2016). 노인 여가스포츠공간의 사회적 의미: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9(3), 75-98.
- 김상혁, 이동근(202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여름철 사망자 수 예측. *보험학회지*, 137, 1-30.
- 김소미, 김정은(2023).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통해 본 가상 체육공간에 대한 철학적 논고. *한국체육학회지*, 62(6), 263-274.
- 김영천(2006). *질적 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 국민생활체육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보현(2010). 자본의 거리응원 공간 사유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4), 29-43.
- 배재운(2024). 코로나19와 노인체육: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인 여가 스포츠 참여 양상의 변화와 전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7(1), 34-51.
- 연분홍, 김종순(2025).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건강관심도, 스마트기기 활용 특성 및 운동 지속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9(3), 1-12.
- 윤이숙(2025). 고령화 시대 기후 위기 대응 방안: 기존연구의 쟁점과 정책과제. *현대사회와 행정*, 35(4), 33-58.
- 이원희(2017). 노인 스포츠 공간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공간의 생산. *한국스포츠학회지*, 15(4), 101-113.
- 이은주(2014).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 지지, 우울감 및 죽음불안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4), 51-63.
- 임정민(2025). 기후 요소가 관광·레저 활동 유형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6(2), 227-241.
- 장세룡(2006). 앙리 Lefebvre와 공간의 생산: 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58, 293-325.
- 정희재, 이민규, 조은영(2017).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참여 동기가 여가제약 및 여가협상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271-285.
- 통계청(2024). 2024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환경부(2023).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종: 환경부.
- 홍준기(2011). 르페브르의 공간 및 도시공간 이론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현대정신분석*, 13(2), 163-182.
- Bevan, C. (2001). 'You're never too old': Beliefs

- about physical activity and playing sport in later life. *Ageing and Society*, 21, 777–798.
- Bogdan, R., & Biklen, S.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Boston, MA: Allyn & Bacon.
- Creswell, J. W. (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García-Witulski, C., Rabassa, M., Melo, O., & Helo Sarmiento, J. (2026).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physical inactivity: A panel data study across 156 countries from 2000 to 2022. *The Lancet Global Health*, 14(4), 500–511.
-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 Lefebvre, H. (1992). *Eléments de rythmanalyse: Introduction à la connaissance des rythmes*. Paris: Syllepse.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Pelling, M. (2011).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From resilience to transformation*. London: Routledge.
- Rubin, H. J., & Rubin, I. S. (2011). *Qualitative interviewing: The art of hearing data*. Thousand Oaks, CA: Sage.
- Seritan, A. (2023).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older adults' mental health: A primer for clinicians. *OBM Geriatrics*, 7(4), 1–20.
- Scott, J. C.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ilk, M. L. (2004). A tale of two cities: The social production of sterile sporting space.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8(4), 349–378.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Taipei Times. (2023, August 4). *Heat does not deter elderly gateball players*.
- Tipaldo, J., Balk, D., & Hunter, L. (2024). A framework for ageing and health vulnerabilities in a changing climate. *Nature Climate Change*, 14(11), 1125–1135.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2). *Climate chang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Connections*. Geneva: WHO.